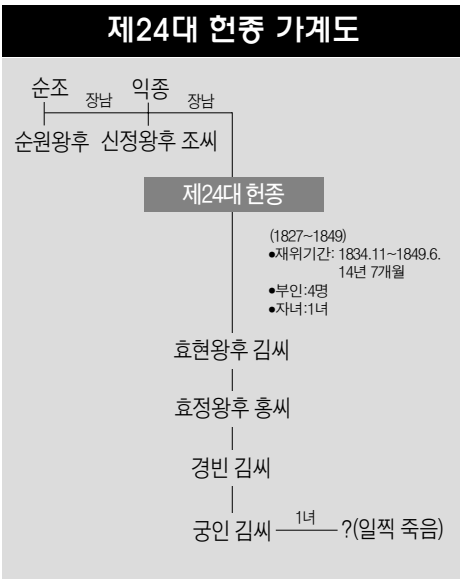


조선 유일의 삼연릉... 청년 군주의 빈약한 이력서

57 24대 헌종 - 경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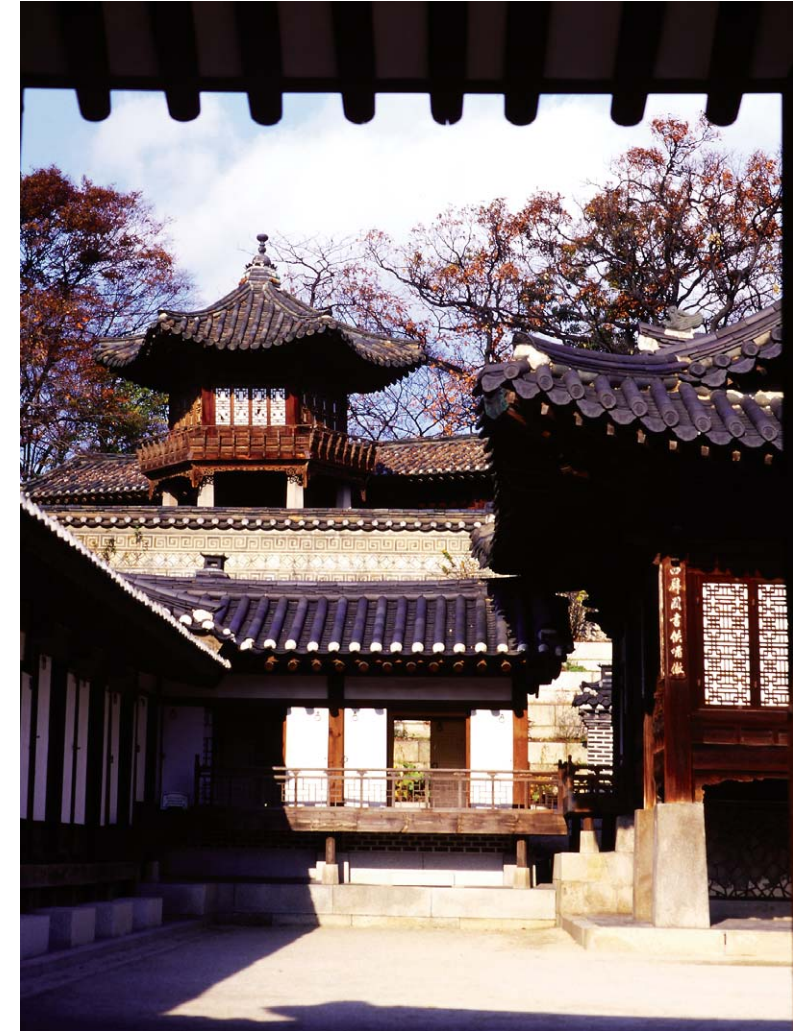
헌종 1827~1849 (23세)
재위 14년 7개월
1834.11(8세)~1849.6(23세)
원비 효현왕후 김씨 : 1828~1843(16세)
계비 효정왕후 홍씨 : 1831~1904(74세)



조선의 역사는 말기(末期)를 향해 달려 가고 있었다. 말기의 인물들은 빼적거리는 '비운(悲運)이란 수레'에 탈 수밖에 없었다. 조선이란 함대는 밀장이 터지고 옆구리가 깨지고 있었다. 세도정치에 휘둘린 허약한 조정은 기강이 휘청거렸다. 관리 임명의 근간이 되는 과거제도는 유명무실해지고 백주대낮에 매관매직이 성행했다. 국가 재정의 기본인 삼정(三政, 전정·군정·환곡)의 문란으로 왕실의 권위는 실추되고 민생은 파탄해졌다. 순조가 세상을 떠나자(1834) 헌종은 여덟 살 나이로 왕위에 오른다. 할아버지 영조의 뒤를 이은 정조는 강건한 국사를 수행했으나, 할아버지 순조의 뒤를 이은 헌종은 너무 어렸다. 여덟 살, 조선 역대 왕 중 최연소 즉위다. 조정의 분위기와 세상 형편은 어린애를 능멸하기에 적합했

은거하던 곳이다. 상중에 근신하는 왕후가 소박한 건물에서 예를 갖추고 법도를 지키도록 단정도 하지 않았다. 후원은 절제되면서도 조화 있는 조경으로 꾸며져 있었다. 낙선재는 1846년(헌종12) 창건됐다. 1926년 순종이 죽은 뒤 윤비(尹妃: 순명효황후)가 이곳에서 은거하다 별세했고, 1963년 일본에서 환국한 영친왕 이은(李垸)도 이곳에서 생애를 마쳤다. 헌종은 재위 3년에 효현왕후(孝憲王后)를 왕비로 맞았으나, 6년 후 왕후는 후사 없이 열여섯 살의 나이로 세상을 뜨고 만다. 이듬해 헌종은 계비를 맞이하기 위한 삼간택에 전례를 깨고 자신도 간택에 참여했지만, 헌종이 마음에 둔 사람(후에 경빈 김씨) 대신 효정왕후 홍씨가 간택된다. 간택의 결정권이 왕실의 어른인 대왕대비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小癡) 허련(許鍊)이 기록한 <소치실록(小癡實錄)>에도 잘 나타나 있다. '낙선재에 들어가니 바로 상감이 평상시 거처하는 곳으로, 좌우 현판 글씨는 완당(阮堂)의 것이 많다. 향천(香泉), 연경루(研經樓), 유재(留齋), 자이당(怡怡堂), 고조당(古藻堂)이 그것이다.' 풍류를 벗 삼으며 경빈 김씨와 낙선재에 거거하던 헌종은 경빈을 맞은 후 2년도 채 못 살고 재위 15년(1849) 6월 6일, 후사 없이 중희당에서 홀연히 세상을 떠났다. 경릉은 세 개의 봉분이 나란히 조성된 삼연릉이다. 조선 왕릉 중 유일하다. 겉으로 보기에 참으로 고즈넉하다. 그러나 조선 말 경위는 우울하다. 허약했던 청년 군주 헌종의 이력서다. 건원릉 서쪽 다섯 번째 봉위에 있는 경릉은, 원래 선조의 유력인 목릉이 있었다. 목릉을 건원릉 두 번째



창덕궁 내에 있는 낙선재(위), 헌종의 경릉은 조선왕릉 가운데 원비와 계비를 모신 유일한 삼연릉이다(아래).

원비 능호 받은 '경릉' 허약한 왕권·방자한 신권 극명하게 보여줘

헌종의 예술과 사랑이 빛어낸 '낙선재' 유일한 치적으로 칭송

다. 안동 김씨의 세도는 브레이크가 고장 난 채 질주하고, 어린 왕은 할머니 순원왕후(순조 비)의 무릎에 앉아 수렴정정을 감내하는 수밖에 없었다. 오죽했으면 그의 묘호를 헌종(憲宗)이라 지었을까. 국헌(國憲)을 지키고픈 간절한 염원을 죽은 후 묘호에 담았다고도 할까.

기록상 재위 기간은 14년이다. 그 중 6년은 수렴정정 기간이고, 8년의 친정 기간에도 그는 힘을 쓰지 못했다.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의 세력다툼 틈바구니에 끼여 숨만 헐떡거리다가 스물세 살 청년이 환(李奭=헌종)은 이성을 하진않다. 왕의 죽음인데 사인(死因)에 대한 기록도 없다.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라고 후세 사람들은 말한다. 정답일지도 모른다.

헌종의 치적, 그가 남긴 것은 창덕궁 낙선재(樂善齋)다. 어린 이는 낙선재 일각을 두고 '헌종의 예술과 사랑이 빛어낸 곳'이라고 표현했다. 낙선재는 우리에게 낮은 이름이다. 일마 전(1989)까지만 하여도 영친왕의 비(嬪) 이방자 여사가 생활했던 곳이기 때문이다. 조선의 마지막 궁녀 몇몇도 이곳에서 살다가 죽었다.

주택풍의 연속된 건물 세 채와 후원(後園)이 펼쳐 있다. 이 건물은 본래 국상(國相)을 당한 왕후들이 소복(素服)을 입고

이제 헌종은 3년 동안 고심한 끝에 왕비가 후사를 생산할 가능성이 없다는 핑계로 대왕대비의 허락을 받아 삼간택에서 떨어진 두 사람 중 한 사람인 경빈 김씨를 후궁으로 맞이들인다. 낙선재와 그 일곽인 석복헌과 수강재는 이때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지었다. 말하자면 경빈 김씨가 곧 왕실의 대통을 이을 왕세자를 낳기 위한 동지인 셈이다.

헌종의 평소 초소인 낙선재는 경빈 김씨를 맞이들인 왕 13년(1847)에 지어졌고, 경빈 김씨와 대왕대비의 초소인 석복헌과 수강재는 그 이듬해에 지어졌다. 헌종은 이곳 낙선재에서 경빈 김씨를 옆에 두고 세상사 잊고 책을 읽고 서화를 감상하면서 시간을 죽였다. 무거운 곤룡포를 잠시 벗고, 나라의 운명도 저만치 밀쳐버렸다. 낙선재(樂善齋)란 '착한 일을 즐겨하는 집'이라는 뜻이다. 문만 나서면 조정 임무의 막무가마가 자유하고 조선을 넘보는 외세의 야수들이 아가리를 벌리고 다가오고 있던 낙선재는 태종의 눈치럼 적요했다.

헌종은 이곳에서 서화를 사랑하여 고금 명가의 유필을 벗 삼아 지냈다. 그가 얼마나 서화를 좋아했는지 당시 헌종에게 여러 차례 낙선재에 불러 들어간 소치

즐기로 천장하고 비어 있던 자리였다. 헌종의 원비 효현왕후가 16세로 승하하자(1843년) 이곳에 안장하고 능호를 경릉이라 붙였다.

6년 후인 1849년 헌종이 승하하자 효현왕후 곁에 묻었다. 왕이 살아 있을 때 왕비 곁으로 가고 싶다는 전교가 없으면 먼저 죽은 왕비 곁으로 가지 않는 것이 법도다. 안동 김씨들은 길지를 골랐다고 열 세 곳이나 다녔다고 둘러대며 추천한 능지가 여기다. 흉당으로 꼽히는 파묘(破墓)자리인데다 헌종은 능호도 얻지 못했다.

헌종의 능호를 숙릉(肅陵)으로 정했으나 국장기간 중에 영부사 조인영의 상소에 의해 효현왕후의 경릉을 함께 쓰기로 했다. 왕인 남편이 아내의 문배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왕권의 허약함과 신권의 방자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계비 효정왕후 홍씨가 73세로 승하하자(1904년) 원비 곁에 묻었다. 효정왕후도 정릉(正陵)이란 능호를 받았으나, 1904년 이전 조선이란 나라가 있는 지 없는 지 혼미한 시절이 아닌가.

세 개의 무덤은 난간석을 터서 한 방을 쓰는 부부임을 나타낸다. 아무리 왕이라도 한 방에 두 여인을 들여놓지는 않았다. 참으로 민망한 모습이다.

아름다운 신혼방 석복헌에 살던 경빈 김씨도 결국 자식을 낳지 못했다. 그 이후 그 여인은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이왕 법도를 무시하려면 비록 후궁이지만 헌종 곁에 안장해 4연릉으로 조성했다면 죽은 자의 혼령이 크게 기뻐하며 덩실덩실 춤을 출 것을. 아차, 그런데 혼유석은 따로 따로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노닐어야 한다. 배려할 줄 모르는 후손들의 참을 수 없는 경박함에 분노가 난다.

글=이우성(소설가 asd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경릉(景陵)

24대 헌종과 원비 효현왕후(孝顯王后) 김씨 및 계비 효정왕후(孝定王后) 홍씨를 모신 삼연릉으로, 조선 왕릉 가운데 유일하다. 정면에서 보아 제일 왼쪽 봉분이 헌종의 능이고, 가운데가 효현왕후, 오른쪽이 효정왕후의 능이다.

헌종은 요절한 문조의 아들이며 1834년 순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당시 8세의 어린 나이였으므로 대왕대비 순원왕후 김씨가 수렴정정을 하면서 안동 김씨의 세도정치가 시작됐다. 이로 인해 삼정이 문란해지고 계속된 흉수로 백성들의 생활이 곤궁해졌다. 헌종은 혹독한 천주교 탄압정책을 폈으며, 1839년 기해박해(己亥迫害)로 많은 신자들이 학살당했다. 후사 없이 보령 23세로 승하해 건원릉 서쪽 산줄기에 장사지냈다.

효현왕후는 1837년 왕비에 책봉돼 6년 만에 승하했다. 효정왕후는 효현왕후의 뒤를 이어 1844년 왕비로 책봉돼 헌종이 승하하고 월종이 즉위하자 왕대비가 됐다. 1908년 헌종은 성황제(成皇帝)로 추존되고 효현왕후, 효정왕후도 성황후로 추존됐다.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정영식	1964년생	170	고	졸	공무	원서	울	이규안	1970년생	165	대	졸	건설	사	광주시	정호승	1975년생	170	대	졸	회사원	대전	조성준	1975년생	170	전	대	졸	회사원	서	울					
임응우	1966년생	174	고	졸	자영	업	울	이광표	1968년생	168	고	졸	자	업	서	울	유준호	1971년생	176	대	졸	회사원	대전	원병대	1971년생	165	고	졸	회사원	경	기	도				
노해웅	1972년생	173	고	고	C E O	창	주	권순석	1978년생	171	대	졸	건설	사	경	기	대	졸	대	졸	회사원	충	고	병	대	졸	회사원	서	울	고	병	대	졸	회사원	울	
이준우	1964년생	168	고	고	회	사	원	박영규	1966년생	182	고	졸	자	업	전	주	왕대현	1977년생	168	고	졸	회사원	충	김지경	1970년생	168	대	고	졸	회사원	대	구	울			
김현태	1957년생	173	고	고	회	사	원	문문중	1970년생	163	고	졸	자	업	광	주	박범진	1975년생	182	고	졸	공무	원	김정준	1965년생	165	대	대	졸	회사원	서	울	대	구	울	
조복재	1965년생	180	고	고	회	사	원	김길식	1975년생	175	고	졸	공	무	원	대	민건홍	1973년생	170	전	대	졸	건축	사	박준하	1952년생	177	대	대	졸	회사원	서	울	대	구	울
임태민	1981년생	180	대	대	회	사	원	민의식	1969년생	172	고	졸	회	사	원	부	한상규	1973년생	171	대	대	졸	건설	사	전준석	1957년생	167	고	고	졸	회사원	서	울	대	구	울
김기업	1969년생	180	전	대	졸	자	업	최정우	1978년생	178	대	졸	노	금	광	주	양명진	1955년생	170	고	졸	회사원	경	오영일	1951년생	170	고	고	졸	회사원	서	울	대	구	울	
홍봉표	1967년생	180	전	대	졸	회	사	노금광	1972년생	162	고	졸	회	회	사	원	이홍철	1967년생	165	고	졸	회사원	경	강태욱	1975년생	169	고	대	졸	회사원	서	울	대	구	울	
최명길	1974년생	165	고	고	회	회	사	정연중	1959년생	165	고	졸	회	회	회	사	고종욱	1970년생	167	대	대	졸	회사원	김용진	1968년생	160	대	대	졸	회사원	서	울	대	구	울	
오상택	1965년생	165	고	고	회	회	회	오세훈	1975년생	175	고	졸	회	회	회	회	안태영	1975년생	170	대	대	졸	회사원	이경술	1963년생	163	고	대	대	졸	회사원	서	울	대	구	울
한용석	1975년생	167	고	고	회	회	회	박현득	1964년생	163	고	졸	회	회	회	회	박진홍	1969년생	162	대	대	졸	회사원	심명길	1971년생	170	대	대	졸	회사원	서	울	대	구	울	
최경복	1971년생	174	고	고	고	회	회	임상훈	1973년생	172	대	졸	회	회	회	회	배중우	1971년생	170	전	대	졸	자	이연재	1974년생	169	대	대	졸	회사원	서	울	대	구	울	
이정배	1966년생	172	고	고	회	회	회	연길호	1973년생	175	고	졸	회	회	회	회	김상기	1975년생	170	고	졸	회사원	백덕열	1976년생	168	대	대	졸	회사원	서	울	대	구	울		
임형준	1973년생	176	전	대	졸	회	회	박성준	1965년생	169	고	졸	회	회	회	회	이종호	1976년생	163	고	졸	회사원	백부열	1967년생	165	고	대	졸	회사원	서	울	대	구	울		
이영근	1976년생	165	대	대	졸	회	회	박준우	1971년생	170	대	졸	회	회	회	회	오진철	1974년생	170	대	졸	한	약	사	최병덕	1968년생	170	고	고	졸	회사원	서	울	대	구	울
김대중	1974년생	173	대	대	졸	회	회	최영우	1962년생	164	고	졸	회	회	회	회	이상철	1974년생	173	대	대	졸	회사원	장보배	1973년생	176	고	고	졸	회사원	서	울	대	구	울	
정화섭	1960년생	175	대	대	졸	공	무	조현욱	1972년생	166	고	졸	회	회	회	회	최영철	1966년생	160	전	대	졸	회사원	유문석	1971년생	167	고	고	졸	회사원	서	울	대	구	울	
이동희	1972년생	180	대	대	졸	회	회	김진원	1969년생	170	고	졸	회	회	회	회	이성경	1966년생	160	전	대	졸	회사원	우정환	1974년생	162	고	고	졸	회사원	서	울	대	구	울	
강정복	1965년생	170	고	고	졸	회	회	김재원	1966년생	175	고	졸	회	회	회	회	정선모	1964년생	158	대	대	졸	회사원	김광범	1970년생	183	전	대	졸	회사원	서	울	대	구	울	
정지영	1974년생	174	고	중	고	회	회	서정은	1971년생	170	고	졸	회	회	회	회	유창식	1974년생	165	대	대	졸	회사원	조경정	1945년생	171	대	대	졸	회사원	서	울	대	구	울	
임인갑	1974년생	165	고	졸	회	회	회	이건우	1971년생	173	대	졸	회	회	회	회	전보우	1971년생	173	대	대	졸	회사원	김광범	1970년생	183	전	대	졸	회사원	서	울	대	구	울	
이현철	1972년생	175	방	통	대	졸	회	박찬수	1975년생	160	전	대	졸	회	회	회	차준학	1972년생	171	대	대	졸	회사원	김광범	1970년생	183	전	대	졸	회사원	서	울	대	구	울	
김중희	1963년생	163	고	대	졸	회	회	모용우	1973년생	177	대	대	졸	회	회	회	이공희	1972년생	165	고	졸	회사원	김광범	1970년생	183	전	대	졸	회사원	서	울	대	구	울		
이영희	1965년생	165	대	대	졸	회	회	박대식	1974년생	175	고	대	졸	회	회	회	안민수	1974년생	175	대	졸	회사원	김광범	1970년생	183	전	대	졸	회사원	서	울	대	구	울		
박중구	1972년생	175	고	졸	회	회	회	최병익	1974년생	176	고	고	졸	회	회	회	고석범	1974년생	162	대	졸	회사원	김광범	1970년생	183	전	대	졸	회사원	서	울	대	구	울		
최응수	1970년생	170	방	통	대	졸	회	김진희	1964년생	160	고	고	졸	회	회	회	이진우	1958년생	170	고	졸	회사원	김광범	1970년생	183	전	대	졸	회사원	서	울	대	구	울		
이동원	1970년생	172	대	대	졸	회	회	정지현	1970년생	162	고	고	졸	회	회	회	안영규	1977년생	168	대	졸	회사원	김광범	1970년생	183	전	대	졸	회사원	서	울	대	구	울		
남정대	1971년생	173	고	대	졸	회	회	정일준	1967년생	165	고	졸	회																							